

구술자료 상세목록

사업명	미추홀, 살아지다2 ‘승기천을 기억하다’				
구술자명	민후남	면담자	문성예		
면담장소	승의평화시장	면담지원	-		
면담 일시	2019년 10월 18일(금) 오후4시, 12월 14일(토) 오후1시	회차	2	시간	55분 23초
자료번호	MichuholCA-07-00001152				
구술 개요	승의동에서 태어나 거의 평생을 삶. 수봉산에는 늘 물이 많았음. 비가 많이 오면 승기천에 미꾸라지를 잡으러 감. 하수, 폐기물 유입으로 오염된 승기천을 복개함. 복개가 이루어진 것은 75년 무렵. 승의평화시장 일대는 과거 수출입의 중심. 미추홀구의 역사적 자원을 잘 보존했으면 함.				
주요 색인어	승기천, 승의동, 와룡소주, 미나리밭, 독정이, 학익천, 복개, 미꾸라지, 하수, 콩나물, 빨래, 수봉산, 피난민, 승의교회, 하품학교, 영화, 개발, 역사				
구술 상세목록 내용			시간	관련 파일(비공개)	
1. 기억 속의 개천			00:02:20~ 00:13:03	▷ 구술활용동의서 ▷ 개인정보동의서 ▷ 음성파일	
- 승의동에서 태어나 거의 평생을 살고 있음. - 어렸을 적 수봉산에는 늘 물이 많았고 주변으로 와룡소주 공장과 미나리밭이 있었음. - 승기천은 독정지에서 용일자유시장, 신기촌, 원인재로 이어짐. - 물이 많이 고인 곳에서는 빨래를 하거나 고기를 잡음. - 학익천은 승기천보다 넓었고, 일부 복개공사를 함. - 아직 남아 있는 학익천을 정화하여 활용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음.					
2. 승기천에서의 에피소드			00:13:04~ 00:14:35		
- 비가 많이 오면 미꾸라지를 잡으러 감. - 비가 많이 오면 승기천이 범람하여 주변 논밭의 물과 합쳐지게 됨.					
3. 승기천의 복개(1)			00:14:36~ 00:18:03		
- 산에서 내려오던 맑은 물에 하수가 유입되며 오염되고 냄새가 나게 됨. - 승기천 주변으로 콩나물 공장 등이 생기며 폐기물이 유입됨. - 물이 오염되기 전에는 천에서 빨래를 하기도 함. - 당시 주안, 독정이 일대에서는 급수차에서 물을 받아 지게로 운반했음.					
4. 수봉산 일대의 생활상			00:18:04~		

- 용정초 일대는 복숭아밭으로, 똥을 모으는 곳이 있었음. - 제물포역 앞에서 수봉산으로 이어지는 길은 과거 산이었고, 이 일대에 피난민들이 살았음. - 용현초에 학생이 늘어나면서 용일초로 분가하고, 이후에 다시 용정초로 분가함.	00:21:44	
5. 승기천의 복개(2)		
- 승기천 복개가 이루어진 것은 중학교(75년) 무렵임. - 인화여중 재학 시절 기억에 남는 학교 행사들이 있음. - 승기천이 남아있었다면 일종의 관광지가 됐을 수도 있을 것.	00:21:45~ 00:26:11	
6. 미추홀구에 대한 애정		
- 승의교회 뒤편의 승의동 302번지에서 삶. - 미추홀구를 벗어나 사는 것을 상상해본 적이 없음. - 골목 구석구석 궁금한 것이 있으면 직접 가서 살펴보는 성향을 가짐. - 하품학교에서 마을 사람들과 동네 이야기와 관련된 영화를 찍기도 함.	00:26:12~ 00:35:19	
7. 승의평화시장		
- (승의)평화시장은 지금은 허름하지만 과거에는 날리던 곳. - 큰길을 중심으로 총 4개의 시장이 모여 있었음. - 배가 들어오면 수출입이 이루어지던 곳. - 당시로는 획기적인 1층은 상가, 2~3층은 살림집으로 지어진 건물.	00:35:20~ 00:40:21	
8. 물이 많았던 미추홀구		
- 미추홀구는 물이 많아 곳곳에 우물이 있었음. - 토지금고 일대의 아파트는 여전히 비가 오면 1층까지 물이 찰 정도임. - 승기천보다는 외곽의 학익천의 물길을 살렸으면 좋겠다고 생각함. - 멀쩡한 땅을 깨서 승기천을 살리는 것보다 오래되어 정비가 필요한 곳(학익천)에 조치를 하는 것이 나음.	00:40:22~ 00:50:21	
9. 미추홀구의 의미		
- 미추홀구를 벗어나는 것을 상상해본 적 없을 정도로 특별한 애정이 가지고 살고 있음. - 미추홀구는 개발하지 않고 역사가 있는 것을 잘 보존했으면 함.	00:51:52~ 00:55:23	